

## 7성진호 전복사고,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

- 해양수산부장관, 어선 사고 발생 보고 받고 인명구조 및 수색 지시

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제주 차귀도 서방 약 35해리 해상에서 발생한 7성진호(29톤, 근해자망, 11명 승선)의 전복사고를 보고받았다.

황 장관은 보고받은 즉시 해양경찰청 및 어업관리단 등 소속기관에 “구조 가용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”을 지시하였다.

현재 수협중앙회에서는 인근 해역에서 조업중인 어선에 사고 현장으로 이동하여 구조활동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, 근해채낚기 황금호(70톤)가 현장에서 승선원 9명을 구조하였다. 현재 국가어업지도선(무궁화19호), 해경 헬기, 인근 어선 등이 사고 현장에서 수색 중이다.

△ (사고개요) '26.10.5.(월) 시간 미상, 제주 차귀도 서방 약 35해리 해상에서 7성진호(29톤, 승선원 11명) 전복발생, 11명 중 9명 구조(양호), 2명 수색 중
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 | 어업자원정책관<br>어선안전정책과 | 책임자 | 과 장 | 양호섭 (051-773-5550)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사무관 | 이강은 (051-773-5526) |